

태풍 '바비' 복상 중... 농작물 피해 예방을

농진청, "수확 다다른 작물 미리 거둬야" 강조 시설하우스 보수·고정작업으로 파손 대비도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6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에 대비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26일 밤부터 27일 사이 제주와 전라 해안 지역을 통과하며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에 들게 되면서 강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지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물이 쓰러지거나 떨어질 피해가 없도록 예방관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복숭아, 사과, 배 등 미리 수확이 가능한 과실은 태풍이 오기 전 수확을 마치고, 수확이 어려운 경우 나뭇가지

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 쓰러짐과 떨어진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한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인 방풍망을 설치한 과수원은 찢어진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수·정비해야 한다. 조생종 등 수확기에 있는 벼는 태풍 전에 미리 수확하고, 논두렁과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한다. 논공, 고추 등 발작물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고추, 참깨는 개별지주를 보강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비닐은실은 골재와 비닐이 밀착되도록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고,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보수해야 한다. 특히, 갑자기 많은 비로 작

물이 자라는 내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시설하우스 주변 물길을 정비한다. 인산의 경우 헤기립 시설 구간마다 버팀목과 방풍망을 설치하고, 피복 자재를 팽팽하게 당겨 빗물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하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물길)를 반드시 정비한다. 노후화된 축사는 붕괴 위험이 높으므로 축대를 보수하고 축사 주변 배수로를 살핀다. 특히, 축사 내 전기시설을 점검해 강한 비람이나 비로 누전이 되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사용 중인 농기계는 통풍이 잘 되고 침수 위험이 없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한다.

무엇보다도 농업인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물고 걸림이나 농작업 등 야외작업을 하지 말고, 거주 중인 주택 주변에 산사태 가능성을 살피고 위험할 경우 미리 대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정충섭 재해대응과장은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강풍 피해가 우려되므로 과수 결속작업과 시설물 보강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농작업을 멈추고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NH페이모아 통장'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간편결제(페이)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용 입출식 상품 'NH페이모아 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NH스마트뱅킹, 윌뱅크, NH링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하나의 통장으로 ▲네이버페이 ▲배민페이 ▲페이 ▲SSG페이 ▲제로페이 ▲지역화폐 등 20개 페이의 출금계좌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상품을 통한 간편결제(충전) 합산 실적이 월평균 10만원이상인 고객에게 일별잔액 100만원까지 최고 연 1.50%(기본금리 0.10%, 우대금리 1.4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간편결제(충전) 실적 월 10만원 이상 ▲농협은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이상 불입 ▲농협은행 오픈뱅킹 계좌등록 후 월 1회 이상 이체 실적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9월 2일까지 '힘을 모아 페이모아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무이자 긴급자금 지원

전북농협, 생활안정 관련 최고 1000만원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성일)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중앙회가 특별히 인정한 피해지역의 조합원에 대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지역 및 피해지역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조합원에게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9월 20일 까지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중앙회에서 이차보전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소기업, 주민 등에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신규자금 이용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p) 우대하며,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p 이상 금리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대출금은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혜택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할부상환 대출금의 경우 할부원리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금 연체 시에는 정상이자를 제외한 순수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전북 관내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지역민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혜택으로, 피해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QR코드 시스템' 도입... 출입시 발급 필수

코로나19 추가 확산 대비 출입 통제

전북대병원, 'QR코드 시스템' 도입... 출입시 발급 필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출입통제와 내원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 시스템'을 전역 도입하고 24일 오후 2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 모든 출입자는 기존과 같이 체온 확인과 손소독 후 QR코드를 발급 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에 QR코드를 인식한 후 입출할 수 있다. 직원은 사원증, 환자는 바코드 인식으로 대체 가능하고, 기타 출입자는 현장에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윤상 기자

QR코드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방문정보 등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출입통제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각 출입구에 키오스크와 리더기, PC를 추가 설치하고, 통제 인력 확대 및 최신 발열감지기 추가설치 등 철저한 준비로 만전을 기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QR코드를 통한 출입자 통제 시스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직원 및 내원객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LH전북본부, 익산 소라 도시공원사업 보상 착수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보상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유지 108필지, 지장물 242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익산소라지구는 총 사업면적이 209천㎡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1,357호(공공지원민간임대 1,101호, 분양 256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익산시의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격은 토지주와 LH, 전북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며, 토지 등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약 2주간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에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보상 상담 및 신청은 LH전북본부 익산권 주거복지지사(☎ 063-840-0909, FAX.063-840-0908,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호빌딩 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청년 구직자들 "향후 중기 취업 가능성 높다"

취업 시 주변 반응·낮은 급여 등으로 취업에 '부정적'

우리나라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취업 시 주변 반응, 낮은 급여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청년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취업 관련 청년층 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청년구직자들은 향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공기업-대기업 순으로 응답해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일할 기회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는지"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자 38.6%가 동의한 가운데,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재학·졸업(53.0%), 전문대 재학·졸업(41.8%), 4년제 대학 재학·졸업(37.8%), 대학원 재학·졸업(24.0%) 순으로 동의해 고등학교 재학·졸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한편 청년구직자들은 향후 중소기업

에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대 및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나의 친구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11.9%)"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 취업은 괜찮다고 생각된다(14.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지지해 줄 것이다(21.9%)" 등 중소기업 취업 시 주변 반응에 대해 낮은 기대를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은 일이 많은데 비해서 급여수준이 낮다(39.0%)"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25.1%)" 등 급여 및 고용안정성과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